

112신고자 비동의 위치추적, 인권위 “부당”

2시간 사이 4차례 걸쳐 문자 신고 접수 경찰, 현장 출동 및 3차례 위치 추적해 “긴급 상황일수도... 피해 확산 막기 위해” 신고자 모 “딸, 정신과 치료 전력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12 문자메시지 신고를 접수한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추적한 경찰의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위치정보 추적 등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한 A씨는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112에 문자신고를 접수했는데 당일 경찰로부터 ‘위치를 추적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문자신고를 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위치 추적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고자 소재 파악을 위해 A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 위치 정보를 조회한 것”이라며 “신고자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데 긴급한 상황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는 만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위치 정보를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총 4차례에 걸쳐 112에 문자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먼저 오전 8시9분께 “오늘 아침도 창문을 여니 바로 담배 냄새가 들어온다. 뒷집 밖에 없는 것 같다. 살기 힘들다. 이 집에서만 5년째라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이 A씨에게 “120번으로 전화해 흡연단속반에 신고하라”고 안내하자,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40분께 “다른 건물로 신고한 것도 범인을 안 잡아주지 않나. 창문만 열면 냄새가 나는데 누가 주시하면서 잡아달라”고 문자신고를 보냈다.

이에 경찰이 신고자의 주거지로 출동했지만 신고자는 만나지 못했고, 대신 신고자의 모친이 “딸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딸이 정신과 치료를 할 전력이 있으니 신고를 해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보행자 및 거주자로 인한 흡연 피해가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는 내용으로 해당 신고를 현장 중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41분께 ‘4동만 오면 노상방뇨를 하는데 1명이라도 잡아달라. 10년 동안 순찰 강화만 하지 말고’라는 내용과, 오전 9시56분께 ‘협박 고소한 것 범인 좀 잡아달라. 화분 도난 당한 것 지금이라도 잡아달라’는 내용의 문자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총 3차례에 걸쳐

A씨의 위치 정보를 추적했고, A씨와의 통화 이후 해당 신고들을 관할서로 이첩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진정 사건의 경우 경찰이 A씨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신고한 내용 역시 단순 민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김미희기자

화순 철길서 열차치인 1명 숨져

24일 오전 11시 12분께 전남 화순군 능주면 만수리 건널목 철길(목포~부전역 방면)에서 남성 1명이 무궁화호에 치였다.

이 사고로 노년층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크게 다쳐 숨졌다.

열차 운행도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원 확인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순=박순철기자

7000여만원 가로채 보이스피싱 10대 수감책 구속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10대 보이스피싱 수감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순천경찰서는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적북 익산, 군산 등지에서 6925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순천시에서도 15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려던 A(19) 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A씨는 19일 오후 1시께 순천시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 B 씨에게 돈을 건네 받으려는 순간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서는 A 씨의 휴대전화 분석 수사를 통해 확보한 6건의 증거를 토대로 총책 검거 등 보이스피싱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최근 10개월간 순천에서 발생한 대면면회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96건에 피해액 23억3000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 지원사업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저금리 대출 수법이 84건으로 전체 범죄 중 87.5%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대출사기 등 다양한 수법이 범행에 사용된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광주 아파트 7층서 추락...30대 여성 구조

광주의 한 아파트 7층에서 추락한 30대 여성이 119에 의해 구조됐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7분께 북구의 한 아파트 7층 난간에 A(35·여)씨가 위험하게 앉아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A씨가 추락할 수 있어 1층 화단에 매트리스를 설치하는 등 구조 작업을 벌였다.

A씨는 매트리스 위로 떨어져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데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신봉우기자

구두코에 구멍 뚫어 불법 촬영 시도한 20대 집행유예

구멍을 뚫은 구두에 넣은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6시 35분께 광주 북구 모 가게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스마트폰을 구멍 뚫은 구두 안으로 집어넣은 뒤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발 크기보다 큰 치수의 구두의 맨 앞을 날카로운 도구로 구멍을 뚫고 스마트폰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치마를 입은 여성에게 접근해 범행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여성이 자리를 피하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씨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점, A씨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동취재본부

“방역대책에 민중 생존권 큰 위협...광주시, 민생해결 나서야”

광주 노동자·농민단체, 오늘부터 ‘민중대회’ 순차 개최 예고



광주지역 노동자·농민단체가 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민생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진보연대 등은 24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당국과 전 국민이 확산 방지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있지만 그럼에도 민중대회를 개최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 대책의 이면에는 민중의 생존과 노동권이 위협 받으며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며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강화될수록 노동자·농민·빈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역대책은 반드시 철저한 민생보호 대책과 같이 가야만 실효성이 있다”며 “방역 지침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민중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광주시는 재난을 기회로 삼아 노점에 수백·수천만원의 과대료 폭탄을 부가하는가 하면, 연이은 수해

와 태풍에 신음하는 농민들에게 재해 보상은 커녕 다른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의 요구마저 1년 이 다 되도록 묵살하고 있다”고 고집했다.

또 “광주시가 직·간접으로 책임져야 할 사업장에서는 상시 해고와 임금 체불,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며 “시는 노동 탄압과 고용 회피 등을 묵인·방조하며 민주 인권 도시라는 명성이 부끄러운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연기했던 ‘2020 광주민중대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